http://dx.doi.org/10.5392/JKCA.2016.16.07.730

군 간부의 상담능력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unseling Education for Counseling Capabilities Rising of Military Officers

구승신*, 윤호순**
세계사이버대학교*, 밝은미래아동상담소**

Seung-Shin Koo(sskoo0903@hanmail.net)*, Ho-Soon Yoon(yoonhs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군 간부의 병사상담 및 관리를 위한 상담능력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군대내 병사들의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군대내 병사들과 밀착되어 생활하는 군 간부들이 병사들을 관리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군 간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빈도분석 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의 보완을 위해 3명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대 전에 상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군 간부들이 76.5%였고, 입대 후에도 상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32.9%였다.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61%였다. 군대 내에서 받은 상담교육에 대해 교육시간 부족과 이론중심 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병사상담과 관련한 상담교육 내용의 개선방안으로 '병사들에 대한 이해', '병사들의 문제파악', '교육내용 적용' 군 상담 기술'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병사들의 군생활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을 상담하는 군 간부의 상담능력과 기존 상담교육의 한계를 알아보고 상담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군 간부 | 병사 | 군 상담 | 상담능력 | 상담교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rovements in current issues faced in counseling training within the military and also show limits in counseling capabilities of military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leading and counseling their troops. In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made on this topic, we looked at issues rising from military troops who are mainly in their post-adolescents having difficulties in adopting themselves to military life style. We also studied current status of counseling within the military and the counseling difficulties faced by military officers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troops.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100 military officers were surveyed for the frequency of the counseling sessions, and to supplement the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3 military officers and analyzed qualitatively.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the in-depth interviews 76.5% of the military officers never had counseling training prior to joining the military and only 32.9% received counseling training after joining the military. 61% of the survey participants expressed difficulties in counseling their troops. Most of them expressed difficulties in lack of training and issues on theory based training. For the improvements following have been identified; "understanding the troops", "Identifying the problems", "Execution of the training" and "Techniques for Military Training".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erms of identifying improvement areas in counseling training in the military through researching into current limits in military counseling and military officers counseling capabilities when the social issue of new troops having difficulties in adopting to military life style are on the rise.

■ keyword : | Miitary Officers | Troops | Military Counseling | Counseling Capabilities | Counseling Education |

접수일자 : 2016년 02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4일
교신저자 : 윤호순, e-mail : yoonhs4@hanmail.net

I. 서 론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의무병 제도로 헌법(제39조)과 병역법(제3조)에 의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인남자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약 30만 여명의 장병이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군에 입대하여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지니게 된다[1]. 입대 병사들의 평균 연령층은 19~25세로 이 연령층의 세대들은 산업화를 통한 핵가족화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한 세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2][3].이런 성향은 군사적 가치와 상충하는 면이 많은데, 통제된 계급사회인 군 조직에서 상하 계급간의 갈등, 업무에 따른 갈등, 단체생활과 억압된 자유에서 오는 갈등 등 여러 형태의 갈등과 동시에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자살충동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면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3][4]. 비자발적으로 군대 내에 있는 것,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후기청소년기인 점, 사회 환경적으로 몹시 다른 환경에 갑자기 처해 있게 된 점 등의 요소는 군인으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5][4]. 또한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 및 불안정,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으로 대다수의 병사들이 해당하는 후기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6].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의 인분사건, GP 내무반 총기사건에 이어 2011년 해병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OOO는 군대 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였고, 군 복무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7]. 2014년 OOO총기난사사건, OOO폭행사망사건[8]. 이외에도 병사들의 자살, 성범죄, 언어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왕따, 탈영 등 군대내 주요 문제들은 대부분 병사들이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상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병 기본권'이라는 국방부 통제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군 간부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2005년부터 간부 보수교육 시 상담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으며, 2006년부터 야전부대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능력육성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 군의 중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 기본권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장병 기본권 상담관, 현재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시험 운영한 후 2012년 159명이 활동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급제대당 1명씩 약 35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라고 한다[9]. 또한 2008년 4월에는 육군리더십센터에 군상담학처가 신설되었고 군 상담과 리더십에 대해 많은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10]. 이후 군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방안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11-13]. 하지만 기존 연구는 군 상담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적지 않은 군 상담 연구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병사 관련 사고들을 볼 때 병사에 대한 관리나 상담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군 상담자들의 상담능력 및 상담교육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병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군 간부들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4077호, 2012)과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483호, 2012) 및 각 군부대의 신상관리 규정에 의거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 고충상담, 신상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간부들은 보직과 동시에 병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지만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리더십 차원의 2~8시간의 상담기초 교육을 받는 군 간부들로서는 병사들의 일신상의 문제나 고충 또는 고민 등까지 해결 해줘야 하는 병력관리 업무수행에 고충이 따르기 마련이다[14].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에 의해 행해지는 군상담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기존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개입 기술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군 간부들의 현행 상담교육 개선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군 상담

1.1 군 상담의 정의 및 특징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 상담기법 교재(2004)에서는 군 상담을 “다양한 문화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하들 가운데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애로사항 때문에 능력을 보유하고도 맡은 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을 때 업무 수행 등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휘통솔자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1]. 이장호 외(2005)는 “국가방위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사적 생활의 제약을 받는 특수성을 갖는 군대사회에서 야기되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각 군의 교육기관 및 각급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5]. 군 상담은 일반 심리상담과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계급차이로 인해 상담을 위한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개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넷째,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군 간부들의 경우 상담능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보다는 면담수준의 혹은 보고용의 형식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16][17].

1.2 군 상담자의 특징 및 역할

군은 인원 구성 면에서 크게 “장교, 부사관, 병”의 3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 상담자의 주를 이루는 간부는 부하들 가까이에 있는 상관인 부사관, 소대장, 중대장, 군종장교 등의 상급지휘자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및 군의관 등이 상담자 역할을 담당한다. 군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진 병사나 문제를 가지지 않았으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반병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병사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과 성장발달을 하도록 조력활동을 수행하고, 또 군복무를 무사히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며 전역 후에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 상담자는 원칙적으로 상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상담자 역할을 하는 간부들은 대부분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나, 몇 시간 정도의 상담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다. 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만 연대급에 제한되어 있어 각급부대에서 의뢰되는 병사들을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은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적인 상담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상담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 상담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고민 들어주기, 정보제공, 자신의 경험담 언급, 조언이나 충고 등 일반적인 면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상담은 소대장과 부소대장, 중대장, 부사관 등 군 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 상담자의 특징은 곧 지휘자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군대조직의 특성과도 연관이 된다. 상담자이면서 동시에 군 간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목적보다는 조직의 특성을 우선시 하고, 특정한 권위주의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강제적이며 규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상담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군 지휘자로서의 역할수행이 주가 된다[12].

2. 군 간부 대상 상담교육현황

상담기법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 중 하나로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기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Stoltenberg와 Delworth는 「상담자 통합발달 모형(Integrated Development Model」을 제시하면서 제1수준에 있는 상담자의 특성으로 인간행동에 대한 지적이해는 있으나 상담경험이 없으며, 상담의 기본적 기술인 공감, 반영, 명료화 등이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사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상담교육을 받은 이들은 상담자 발달수준의 제1수준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2].

군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집단이며,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2012)에 의거 엄정한 군기, 법규 준수 및 상관의 명령에 복종, 내무생활(영내거주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술전기를 연마하여야 하고, 유사시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병사들은 군 입대 후 외부와의 정보가 고립된 채 새로운 조직 환경과 낯선 새로운 동료들과의 공동생활, 상명 하달식의 일방적 임무수행, 위계적, 권위적 계급 문화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군 생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14].

따라서 병들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군 간부들의 상담 기술의 습득은 병력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 간부들의 체계적인 상담기술 부족은 병들의 군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일시적인 심리상태 변화를 유도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병들의 상태를 알아차리거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상담기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담교육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군 교육과정별 상담교육 시간편성

구분	장교			부사관		
육군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원사반	상사반	중사반
		8H		8H	8H	6H
해군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초급	중급	고급
		8H		8H	16H	16H
공군	초등군사반	중급반	고급반	초급	중급	고급
	2-4H		4-8H	2-4H		2-4H

자료 : 육 · 해 · 공군교육사(2013)

상담기술 교육은 2004년부터 과목화하여 양성 및 보수 전 과정에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 · 해 · 공군교육기관의 상담관련 교과 편성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아래 [표 2]는 육군교육사의 장교대상 상담교육 내용이다.

표 2. 육군 장교 초등군사반 과정 상담교육 교과편성

구분		교육내용	비고
1부	상담의 이해	마음의 문 열기, 군상담의 이해, 군상담 진행과정	강의/동영상
2부	상담기법	경청하기, 반응하기, 질문하기, 종합실습	강의/실습/발표
3부	상담진행 과정과 실습	육군 심리검사 활용, 개인상담 종합실습	강의,토의, 실습, 발표

자료 : 육군교육사(2013)

위와 같이 각 군 교육기관에서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상담 기초교육이 주를 이루며 그나마 절대적인 교육시간이 부족하여 그나마 배운 기초교육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간에서 학사과정(4년) 또는 학사과정 후 대학원 과정(2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습 등 수년간의 상담훈련을 거쳐 상담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비교해볼 때 2~16시간 이내의 상담 기초교육만으로는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들이 병사 상담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과 군 내부의 상담교육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군 간부의 상담경험 실태와 군내 상담교육의 문제점 및 새로운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와 심층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양적연구

양적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는 2015년 6월 경기도 소재 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선임부사관, 행정보급관, 부소대장, 소대장, 중대장 등 군 간부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들이 군부대 출입에 제한이 있어 OO상사가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지역 부대들을 다니면서 군 간부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취지, 설문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9][14], 초급지휘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9] 등을 참고하고 군복무 25년차인 준사관의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초안을 작성한 후 현직 간부 2명에게 의뢰하여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 내용의 이해 용이성, 문항 수 및 소요 시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내용을 수

정하였다. 설문지는 민간상담교육 경험, 병사상담경험, 군대상담교육 경험, 신규 상담교육 개발의 필요성, 방식, 교육 내용, 일반적 특성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도구의 내적일치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ą = .639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 보통 신뢰도 Cronbach α 값이 .6 이상일 때 문항별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조사도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일부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8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근무 년수, 관리인원병사수, 직책과 상담의 병의 군생활 적응 영향력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15.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 3. 항목별 설문내용

변인	설문내용	수
민간상담교육	상담교육경험, 상담교육을 받은 기관	2
병사상담경험	병사상담 경험유무, 병사상담에 대한 느낌, 병사상담능력평가, 병사상담의 중요도	4
군내상담교육	상담교육유무, 상담교육시간, 상담교육에 대한 소감, 상담교육의 미효과에 대한 원인	4
신규상담 교육의 필요성 및 방식	필요성, 교육참가 의향, 교육시간, 교육방식	4
신규상 담교육 내용	상담의 기본개념, 상담 요소, 상담기술, 단기상담 및 중장기 상담 구별, 병사 이해, 병사 문제파악, 자원연계,	7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계급, 직책, 학력, 근무년수, 관리병사의 수	7
계		28

2. 질적연구

질적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고 군 특성상 문헌연구와 설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병사들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군 상담의 어려움과 원인, 해결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면접대상자는 병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OO 부대의 교육대장과 헌병대장 2명이었다. 심층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녹취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8월에 진행하였고 면접시간은 약 1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접 자료는 후기 청소년인 병사들의 이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서의 문제점, 군 간부들의 병사상담에 있어서의 어려움,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의 질문목록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특히 군 간부들이 군 상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사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군 간부들은 남자가 60%(51명)였으며, 여자는 40%(34명)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에 있어서는 30세 이전이 41%(35명)였으며 30세 이후가 59%(50명)였다. 학력에 대해서는 '고졸(검정고시 포함)'은 17명(20%), '전문대 재학, 중퇴'는 6명(7.1%), '전문대 졸업'은 18명(21.2%), '대학교 재학, 중퇴'는 10명(11.8%), '대학교 졸업'은 34명(40%) 이었다. 계급에 있어서는 부사관이 61.2%(52명)였으며, 장교가 35.3%(30명)였다. 직책은 '선임부사관'과 부소대장이 각각 2명(2.4%), '행정보급관'은 19명(22.4%), '소대장'은 13명(15.3%), '중대장'은 3명(3.5%), '참모'은 35명(41.2%)으로 '참모' 직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보급관' 순이었다. 또한 임용 후 근무년 수는 10년 미만이 55.3%(47명)였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4.7%(21명)였다. 관리하는 병사의 수는 10명 미만이 31.8%(27명)이며, 10명~30명이 12.9%(11명), 30명-50명이 10.6%(9명), 50명에서 100명이 21.2%(18명), 100명이상의 경우도 2.4%(2명)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군 간부들은 상당수의 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2 병사와의 면접상담관련 특성

군 간부들이 병사상담을 위한 교육이수부분에 있어서는 군입대전 민간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경우는

76.5%(65명)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교육을 받은 경우는 23.5%(20명)에 불과하였다. 민간 상담교육 장소를 알아본 결과 '대학(교)전공' 4명(20%), '전문상담(교육)기관' 9명(45%), '일반 교육기관' 3명(3.5%), '기타' 3명(4.7%)로 나타났다. 입대 후 병사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경우는 67.1%(57명)였으며, 32.9%(28명)는 입대 후에도 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군에서 대체적으로 초급지휘자들에게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85명의 군 간부들 중 병사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74.1%(63명)였으며, 25.9.7%(22명)는 병사와의 상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관리를 위한 상담관련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 간부들은 병사를 상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병사와의 상담경험이 있는 군 간부 63명 중 자신의 상담능력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28.6%(18명)는 중하 혹은 하라고 응답하였으며, 50.7%(32명)가 중간정도라도 응답하였고, 4.76%(3명)만이 상급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상담경험자 중 22.2%(14명)는 상당한 어려움을, 36.5%(23명)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8.6%(18명)였고, 12.7%(8명)만이 어려움이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인 군 간부가 인식하는 자신의 면접상담능력과 병사면접상담의 어려움 정도와 비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담이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00%가 보통이다' 이상으로 대답했다. ('보통' 30명(35.3%), '영향이 큰 편이다' 40명(47.1%),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15명(17.6%)

근무년수, 관리인원병사수, 직책과 상담의 병의 군생활적응 영향력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근무년수와 관리인원병사수에 따라서는 상담이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직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직책이 올라갈수록 병사들에 대한 상담이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N	%	최종 학력	N	%	근무년수	N	%
20-24	7	8.2	고졸	17	20.0	1년미만	3	3.5
25-29	28	32.9	전문대중퇴	6	7.1	5년미만	21	24.7
30-34	27	31.8	전문대졸	19	22.4	10년미만	23	27.1
35-39	19	22.4	대학중퇴	9	10.6	15년미만	21	24.7
40-50	4	4.7	대학졸업	34	40.0	20년미만	14	16.5
합계	85	100.0	합계	85	100.0	20년이상	3	3.5
						합계	85	100.0

관리병사수	N	%	군계급	N	%	성별	N	%
10명 미만	27	31.8	부사관	52	61.2	남자	51	60
10-30	11	12.9	준사관	1	1.2	여자	34	40
30-50	9	10.6	장교	30	35.3	합계	85	100.0
50-100	18	21.2	기타	2	2.4			
100명이상	2	2.4	합계	85	100.0			
무응답	18	21.2						
합계	85	100.0						

표 5. 상담이 병의 군생활적응 영향력 인식차

직책	상담이 병사들의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합계 (명)	χ^2
	보통	영향이있다	영향이 매우 크다		
선임 부사관	-	2(100%)	-	2	22.261*
행정 보급관	5(26.3)	6(31.6)	8(42.1)	19	
부소대장	1(50%)	1(50%)	-	2	
소대장	7(53.8)	6(46.2)	-	13	
중대장	-	1(33.3%)	2(66.7%)	3	
참모	13(37.1)	17(48.6%)	5(14.3%)	35	
기타	4(36.4%)	7(63.6%)	-	11	
합계	30	40	15	85	

*p<.05 **p<.01 ***p<.001

1.3 상담교육 현황 및 효과

군에서 실시하는 군상담교육을 이수한 57명중 86%(49명)은 10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하였고, 20시간이하가 3.5%(2명), 30시간 이하가 7%(4명), 31~72시간이 3.5%(2명)으로 교육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57명 중 45.6%(26명)은 해당 상담교육이 병사들을 상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50.9%(29명)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3.5%(2명)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의 효과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31명의 교육효과의 부족원인에 대한 중복응답에서 첫째, 이론치중의 교육, 둘째 교육시간 부족, 셋째 현실과 다른 교육

내용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간부들은 신규상담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문 응답에 84명(98.8%)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이 마련될 경우 적극적(32명) 혹은 가급적(48명)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4 신규군상담 교육내용 소요

신규 군상담교육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되는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7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은 1순위 '상담의 기술(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등)(3번문항)' 이었으며, 2순위 '병사들에 대한 이해(후기 청소년기, 심리상태 등)(5번문항)' 3순위 '병사들의 문제파악(심리검사, 문제사정방법 등)(6번문항)', 4순위 '단기상담과 중장기 상담이해하고 적용하기(4번문항)',5순위 '상담의 요소(경청, 공감, 재진술, 반영, 직면, 질문 등)(2번문항)'으로 나타났다. 6순위 '상담의 기본 개념(상담의 정의, 상담의 종류, 상담자 윤리 등)(1번문항', 7순위 '자원연계(지역자원 연결, 전문기관 의뢰 등)(7번문항)'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신규 군상담교육 소요내용

문항내용	문항별평균 (5점 만점)
1. 상담의 기본 개념 (상담의 정의, 상담의 종류, 상담자 윤리 등)	3.94
2. 상담의 요소 (경청, 공감, 재진술, 반영, 직면, 질문 등)	4.21
3. 상담의 기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등)	4.5
4. 단기상담과 중장기 상담이해하고 적용	4.37
5. 병사들에 대한 이해 (후기 청소년기, 심리상태 등)	4.49
6. 병사들의 문제파악 (심리검사, 문제사정방법 등)	4.47
7. 자원연계 (지역자원 연결, 전문기관 의뢰 등)	3.79

또한 군 상담교육 구성에 대한 중복응답에 대해 '상담과정에 대한 간접체험시간 갖는 방법(영상보기, 관찰자 되기 등)'이 54명(38.6%)으로 가장 높았으며,'이론과 실습시간 늘리는 방법' 32명(22,9%), '다양한 상담기술 습득(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34명(24.3%), '실습시간 늘리는 방법' 20명(14,3),순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상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32시간 이상' 49명(57.6%),이 가장 높았고 '40시간 이상' 26명(30.6%),'24시간 이상' 10명(11.8%), 순이었다.

2. 질적 분석결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과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내용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현직 군 간부 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병사상담을 위한 교육 이수 경험, 병사상담의 실제, 병사상담에서의 어려움, 병사관리를 위한 상담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1 병사상담을 위한 교육 이수 경험

군 간부들 중에는 상담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수의 경우 입대 전 혹은 군 생활 중에 매우 짧은 시간 민간 상담교육을 받아, 심리상담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업무상 필요성을 느껴 상담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민간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적게는 10~20시간 또는 많은 경우 100시간이 넘는 경우도7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초급지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2.2 병사상담의 실제

군 간부들이 군 조직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역할을 하는 경우는 직급이나 소속부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도 상담해보지 못한 경우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군 간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별로 담당하는 병사가 정해져있으며 담당하는 병사들의 군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 경

우 심리상담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들은 상담한다고 하기보다는 '관리한다'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관리하는 병사의 군 생활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나 힘들다고 호소하는 병사가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주로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참여자 1).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병사와 고민을 말하기 보다는, 주로 행군을 할 때에도 혹은 부대 내 생활에서 걸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정도지요"(참여자 2)

"군 조직의 상담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군대조직의 보고체계에서는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고 또 병사들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여자 1)

2.3 병사 상담에서의 어려움

군 간부들은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다른 병사나 또는 자신에 빗대어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공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부족은 초, 중, 고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군 간부들은 상담의 아주 기본인 경청, 관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대에 속하는 병사들은 부모님의 과잉보호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며, 훈계나 잔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아 군 간부의 훈계식 면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군 간부들은 군 생활을 잘하는 다른 병사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군 생활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감능력이 부족합니다. 병사들은 군 간부들의 훈계식 상담에 대해 불만을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사회에서는 문제를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자유가 다소 억압되고 강제성이 강한 군대에서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대한 병사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했을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군대생활을 잘 할 수 없지만 부양을 받던 가정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정에서 경중을 파악해 문제의 성격에 맞는 해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군 간부선에서 해결해야 할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문제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나 민간의 전문상담사에게 의뢰해야 할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구별해야 할 것이지만 문제의 경중을 파악하는 것도 잘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심각한 문제의 경우에는 의뢰가 잘 되어있지 않아 위험한 사건의 재발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전부터 즉 초,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군 생활 부적응자가 많습니다. ....중략... 가정폭력 등 성장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병사들, (초,중, 고) 학교생활 부적응자,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자들은 군대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급지휘자들이 병사들 문제의 경중을 파악해서 문제가 위중한 경우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나 민간전문상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자 2).

2.4 병사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방향

현재의 군대내 병사관리를 위한 상담교육은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시간을 현재보다 길게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우선 병영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상부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부조직의 상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상담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상담 받은 병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병사들로 하여금 상담을 기피하게 되어 병영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시간 내외로 이루어지는 군 상담 교육은 이론습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중요한데 실습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참여자 1).

"경청, 공감, 관찰 등 상담의 기본적 요소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고 심각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나 민간 전문상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참여자 1).

"마주앉아 상담하는 것만이 아닌 관찰상담, 친근한 질문법 등, 군대상황에 맞는 상담기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자 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관련, 군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군 상담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 간부들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 상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통해 군 간부들은 병사들을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은 시간수나 내용적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결과는 첫째, 군 간부들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조직에서의 병사 상담은 비밀보장 등 상담의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라기 보다는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리"차원의 상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사들의 문제는 후기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의 문제점부터 신세대의 독특한 특성과 관계된 문제점,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 가정과 관련된 문제점까지 다양하다. 넷째, 현 상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은 시간이 짧고 이론에 치우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상담교육은 시간을 충분히 하고 이론보다는 당장 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 위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간부들이 병사들을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과정에서 후기청소년기의 이해, 군인의 정신건강 등을 포함하여, 군생활의 특성을 감안한 면접상담 기술 및 군 부대 인근의 지역사회 자원활용과 네트워킹 등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상담교육시간이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 탁여송(2013)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신병 및 전입자를 비롯한 신상 변동자에 대한 면담과 군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지도와 군 생활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과 문제유발 잠재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군간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군대에서 활용가능한 상담기술을 보급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의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GOP, GP 등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개입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심층면접 대상자가 3명으로 면접결과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14.

[2] 서혜석, 이대식, 구자근, "신세대 병사의 스트레스와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pp.55-74, 2010.

[3] 최은진, 박희현,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희망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3호, pp.129-146, 2012.

[4] 김정은, "병사의 군 생활적응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모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6권, 제2호, pp.5-38, 2013.

[5] 구승신, *신세대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7] YTN, "김상병, 관심병사로 분류," 2011.07.06.
[8] 미디어다음 아고라,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구시대적인 군대 문화 바꿔야," 2014.6.23.
[9] 탁여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와 군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6권, 제2호, pp.93-124, 2013.
[10] 김완일, "군상담 모형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221-241, 2008.
[11] 양미진, 신효정, 송미경, *군 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연구집*, 2008.
[12] 김서연, *군 상담자를 위한 대화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군부사관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 구승신,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군상담의 현황 연구,"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제4권, 제1호, pp.1-20, 2013.
[14] 장정기, 신홍규, 김경순, 변상군, "초급지휘자 상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155-165, 2012.
[15]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05.
[16] 김무영, *군 상담교육 발전방향(육군을 중심으로), 육군 상담발전 세미나*, 육군교육사령부 2007,
[17] 황창의, *군 상담활동의 실태 및 요구분석-기본권 전문상담관 배치이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저 자 소 개

구 승 신(Seung-Shin Koo)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문학사)
- 1993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세계사이버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심리상담, 군사회복지실천

윤 호 순(Ho-Soon Yoon) 정회원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11월 ~ 현재 : 밝은미래아동상담소, 청소년비전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심리상담, 군사회복지실천